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사실 너무 자랑스러워”

광복 80주년...광복회·보훈청·해피니스CC 초청 행사

카자흐스탄 독립운동가 후손 학생 26명 광주 방문 잊혀진 역사 복원·국민주권 정신 계승...연대의 장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고려인 후손들이 광주를 방문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 국민 주권의 독립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의미 있는 국제적 연대의 장으로 승화됐다.

21일 오후 전남 나주 해피니스CC에 20여명의 카자흐스탄 중·고등학생들이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넓게 펼쳐진 자연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 일부 학생들은 큰 숨을 들이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해피니스CC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자연을 배경삼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등 한국 문화를 잠시나마 체험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최재형·계봉우 선생의 후손 5명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이여는 인물들의 후손이다.

학생들은 지난 18일부터 광복회 광주지부 등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한 '중앙아시아 독립운동가 후손 학생 초청 탐방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해피니스CC는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고려인 후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따뜻한 환대를 전했다.

환영행사에는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차재진 해피니스CC 대표, 교육 광복회 광주지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입국 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탐방, 고려인마을 방문, 송의자연과학고 진로체험 수업,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문화교류 등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광주와 역사성과 대한민국의 현재를 몸소 체험했다.

이를 통해 고려인의 강계이주 역사와 조국과의 연결성을 직접 확인하며 광주가 '뿌리를 확인하는 역사 현장'임을 체감했



21일 전남 나주 해피니스CC에 방문한 카자흐스탄 중·고등학생들이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과 차재진 해피니스CC 대표, 교육 광복회 광주지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계봉우 선생의 후손으로 광주를 찾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4세 투르간바예바 사비나양 (16)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며 “나의 조상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실에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며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준 광주시민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준비한 차재진 해피니스CC 대표는 “광복 80주년에 선조의 조국을 찾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클럽 정상에 세운 대형 태극기에는 조국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존중한

다는 사실을 꼭 느끼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과 함께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조국과 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글·사진=윤용성 기자 yoi1404@

동구 방치된 빈집, 정원으로 ‘재탄생’

광주 첫 직권 철거...초하류·수목 등 식재

광주 동구가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건설부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건설부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조성된 정원을 둘러보며 변화된 환경을 확인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현장관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주민 참여형 정원 관리 방향도 안내했다.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구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민 정원사’가 참여하는 자율관리체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불안 요소였던 빈집이 열린 생활정원으로 거듭나 지역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학비노조 파업...광주·전남 368개교 급식 차질

광주 145곳·전남 223곳, 빵·우유 등 대체급식 제공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1일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날 파업 들어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368개교의 급식이 간편식이나 빵·우유 등의 대체식으로 제공됐다.

광주지역 학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4251명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989명으로 파업 참여율은 23.3%이다. 지역 내 초·중·고 258개교 중 113개교는 평소처럼 정상 급식이 이뤄졌지만, 145개교에서 간편식이 제공됐으며 빵·우유 등으로 급식이 대체됐다.

전남지역은 교육공무직 8300명 중

1339명이 파업에 들어가 참여율은 16.1%이다. 급식은 803개교 중 559개교는 정상 운영했으며, 223개교는 간편식·떡·빵 등으로 대체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RISE사업단, 석화산업 발전전략 모색

전남대(여수) 전남 RISE사업단이 한국 최대 석유화학 단지 위치한 여수에서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된 산업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23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여수) 전남 RISE사업단은 지난 11일 여수 하든베이호텔에서 ‘K-석유화학산업 위

기 대응 전략 및 지역산업 혁신 산학협력’을 개최하고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전환기를 맞이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순천대, 한영대 교원과 산업계 연사, 참여기관 연구원, 관련학과 재학생 등 총 54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여천NCC 김동호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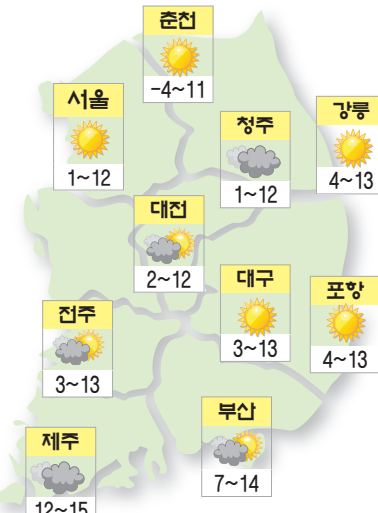
△부스스앤엘 최태송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기업별 기술 대응 전략,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최창호 교수(경상국립대) △주지봉 교수(전국대) △안광노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등이 학계·연구계의 시각에서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제언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민수 기자 joinus@

오늘의 날씨

예보 07:13 맑음 08:07
예보 17:23 맑음 17:40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4~13
	목포		8~13
	여수		7~13
	순천		4~13
	구례		3~12
광주	애남		5~14
	삼도		6~15
	흑산도		9~14
	고흥		3~15
	진도		7~13

목포	미물(고)	02:11 / 15:00
	샘물(저)	07:32 / 20:15
여수	미물(고)	09:37 / 21:27
	샘물(저)	02:53 / 15:41

“휴대전화 왜 안 바뀌지?”

만년필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한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아.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34대, 소방대원 9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6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18분 원진.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발부판지 못해.

한편, 이번 화재로 거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또 소방 차산 12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67명 태운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

중과실치상 혐의...선장 신병 확보 절차 착수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책임 여부 조사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을 무인도로 돌진, 좌초사고를 낸 일동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은 퀴제누비아2호 일동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죽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섬과 암초가 많아 수역이 좁은 ‘위험 구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동 조종 의무를 어기고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 뉴스를 검색하느라 조타 타이밍을 놓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선박은 시속 40~45km(약 22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안쪽도를 인지,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 역시 좌초도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다.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항해 총괄 책임자인 C 선장(60대)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동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중과실치상, 선원별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퀴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원별 9조에 따라 선정은 좁은 수로 통과, 충돌 위험 해역 접근, 항구 출입 등

의 상황에서는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 퀴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C선정은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수사관 5명을 목포 VTS에 보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관제사 1명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퀴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측도와 충돌해 좌초됐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